

참고자료

■ FTA 체결의 공리적 가치

- FTA는 제조업이든 농업이든 정부를 수 있는 권리의 양상권을 자유무역 협정을 통한 국가 간에 자유로운 무역을 활성화하여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.

분임토의 공통 토론 자료

2010. 4.

■ 한국과 FTA

○ 우리나라는 지난 4년 동안 자유무역의 가장 큰 수혜국

-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가 70%를 상회한다는 점을 강조하자 절대적도, 상대적도 같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보호주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FTA가 가장 효과적인 대안

○ 미국은 이와 같은 우리의 FTA 상대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장

-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의 47%에 1%가 증가할 수 있다. 반면 중국, 일본 등 우리의 경쟁국들보다 우리 기업에 수

1. 한미 FTA

■ FTA 체결의 궁극적 목표

- FTA는 세계화시대에 맞춰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양상으로 자유무역 협정을 통한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활성화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있음

- 기업의 경우 국내시장에서만 물건을 팔았을 때 보다 해외에 까지 물건을 팔면 더욱 많은 이윤을 창출해 낼 수 있게 됨
- FTA 체결로 인해 무관세로 물품을 수출하게 된다면 다른 나라의 상품(관세상품)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유리하게 되고, 가격경쟁력 때문에 더 많은 물품을 팔수 있게 됨
-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에 무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, 수출하는 국가 중 미국은 가장 큰 시장을 가진 우리나라에게선 매우 중요한 국가임

■ 한국과 FTA

- 우리나라는 지난 40년 동안 자유무역의 가장 큰 수혜국

-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가 70%를 상회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더라도,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보호주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FTA가 가장 효과적인 대안

- 미국은 이와 같은 우리의 FTA 상대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장

-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의 87%의 관세가 즉시 철폐됨. 그만큼 중국, 일본 등 우리의 경쟁국들보다 우리 기업의 수

출경쟁력이 높아질 것임.

- 미국 상품의 관세가 낮아져 더 싼 가격으로, 더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됨. 가격하락이나 상품 선택 폭의 확대로 국민의 후생수준이 향후 10년간 20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

□ 한미 FTA에 대한 대통령의 전략 사고(Washington Post, April 12, 2010)

○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(정치적, 군사적, 경제적)으로서의 한국의 중요성 강조

- “한미FTA가 단순히 경제협정의 문제가 아니며, 오바마 행정부의 신 아시아 정책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”이라 지적

- “미국 입장에서도 일본과 중국을 포함해도 아시아에서 FTA를 맺을 적당한 나라가 많지 않을 것”임을 주장

- 한미 FTA 관련해서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함을 강조

○ FTA란 항상 부분적으로 손익이 교차하는데 이를 전체적으로 합쳐 플러스가 된다면 추진해야 함

- 경제적으로 한국에게 있어서 중국의 비중이 더 크지만 전략적 관점에서 미국과의 FTA의 중요성 강조

□ 한미 FTA는 세계 최고와 당당히 겨루어 일류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시도

○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오랜 고민 끝에 주도적으로 성

사시키고자 하는 것임

-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한미 FTA를 우리 경제·사회 시스템 전반을 선진화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

○ 한미 FTA 발효시 예상되는 10년간 경제 효과(2007. 4. 11개 국책연구기관 공동연구)

- GDP 6% 성장, 일자리 창출 34만개,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

○ 한미 FTA 발효시 국가경쟁력과 기업 신인도를 향상시켜 우리의 경제 위기 극복을 앞당길 수 있게 됨

○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 접근이 확대되어 경제위기에 따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수출 위축에 대응할 수 있게 됨

- 한미 FTA에 반영되어 있는 조사개시 전 사전협의를, 다자간 세이프가드 적용 배제 등을 통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보호주의적 무역 조치를 완화하는 것이 가능

○ FTA로 대변되는 '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'는 갈수록 증가 추세

- 세계 무역의 50% 가까이가 FTA 등의 지역협정체결국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은, 우리나라가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

□ 협상 결과

○ 상품 분야에서는 전체 94% 수준의 수입량에 대해 관세를 조기 철폐(즉시 혹은 3년 이내 철폐)하기로 함

o 쌀 개방 문제

- 한국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쌀시장 개방에 대한 농민들의 항의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았고, 정부는 쌀 개방이 되면 FTA 협상은 결렬될 것이라고 누차 강조함
- 이에 한국은 최소 30억 달러 시장인 미국의 조선업 시장 진출을 포기하는 대신, 5천만 달러 시장(쌀 10만톤 분량)인 한국의 쌀 시장을 지켜냄. 미국의 조선업은 존스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음

o 법률시장 개방 : 한미 FTA의 결과, 3단계로 법률시장이 개방됨

- 1단계 개방: 협정 발효 전까지 시행. 외국 로펌의 국내 설립 허용.
외국법 자문만 허용. 사건수임은 금지
- 2단계 개방: 협정발효 2년 후부터 시행.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의
협약체결 및 공동으로 사건수임 가능
- 3단계 개방: 협정발효 5년 후부터 시행. 외국 로펌의 국내 변호사
고용 허용

□ 기대 효과

o 한미 FTA는 무역에 의지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,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는 한미 FTA를 체결하면 당장 수출에 청신호가 켜짐

- 수출이 활성화할 경우, 국내 경제성장률은 그만큼 증가하게 됨
- 국내의 경우 해외 자본 투자 증가 및 산업 활성화, 그로 인한 일자
리도 증가

o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FTA 체결은 한미동맹관계의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,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됨

- 한미 FTA 체결은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이는 정치적인 효과로서 한미동맹 강화로 인한 안보 강화로 이어질 것임

-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최초로 미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"미국-동아시아-유럽"을 연결하는 「동아시아 비즈니스 중심국가」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임

o 한미 FTA 체결이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를 향상시켜 외국인 투자 유치가 증대됨

-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면 외국인 투자 증대 뿐 만 아니라 정부 및 기업의 해외차입비용이 감소하고, 국내 투자 확대의 효과가 발생되고, 이는 국내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음

- 국내 제도의 투명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. 칠레의 경우에는 미국과 FTA 발효('04.1월) 이후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상승했음

□ 비준 지연

o 2007년 4월 협상타결 이후 3년이 지났지만 한미FTA는 양국의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진 채, 비준과 발효 시기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

- 각국이 치열한 각축을 벌이는 세계 교역시장에서, 정체는 곧 후퇴와 다름없는 일로 여겨짐

o 한미 FTA의 발효 지연은 그 자체만으로 우리 경제에 큰 손실을 안겨 주고 있다는 분석

- 기업들은 한미FTA의 비준 지연으로 연간 15조 2천억원의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GDP와 성장기회,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모두 고려한 액수임

o 미국 또한 자동차 등 일부 업계를 제외하고는, 한미 FTA의 조속한 의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임

- 한미 FTA 비준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에 한국과 유럽연합간 FTA 등이 먼저 발효되면, 한국 시장에 대한 선점효과를 고스란히 빼앗기게 되기 때문

- 미국 정부는 경제위기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태여서, 우리나라와 콜롬비아, 파나마 등과의 FTA 발효가 절실한 상황임

- 미국 언론도 한미 FTA가 미국 제품의 한국 수출을 증대시킬 기회인만큼, 경기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비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음

- 앨라배마 밥 라일리(Bob Riley)주지사와 이 지역 출신 연방 하원의원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힘

o 정부는 한미 두 나라의 안팎에서 형성되고 있는 FTA 진전의 분위기를, 더욱 고조시켜나간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음

- 올해 안에 유럽연합과의 FTA를 발효하고 페루, 터키 등과의 협상을 급속하게 진전시키면서, 미국 정부와 업계를 전방위로 압박한다는 전략

□ 미주지역 자문위원의 역할

- 금년 하반기 미국 중간선거(11월)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상반기 중에 반드시 타결될 수 있도록 미국 의회 및 현지동포들과의 네트워킹을 더욱 강화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미국 조야를 설득할 필요가 있음

2. 제5차 G20 정상회의 (서울, Nov. 11~12, 2010)

□ 국제공조의 연혁

- 1974년, 오일쇼크 이후 선진 국가들이 경제정책 협력을 위해 G5구성 (미국, 일본, 영국, 프랑스, 독일)
- 곧이어 이탈리아(1975), 캐나다(1976)가 포함된 G7이 성립되어 매년 정상회의 및 재무장관회의 개최
- 1997년에 정치 분야에 대해 러시아가 참여하는 G8이 설립되었으나,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의 G7 체제가 유지
-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 안정 및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협력체제 필요성 제기
- 1999년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가 함께 모여 국제사회의 주요 경제·금융 이슈를 폭 넓게 논의하는 "G20 재무장관·중앙은행총재회의" 출범
- G20 회원국 : G7(미국, 일본, 영국, 프랑스, 독일, 캐나다, 이탈리아), 한국, 중국, 인도, 호주, 브라질, 멕시코, 인도네시아, 아르헨티나, 러시아, 터키, 사우디아라비아, 남아공, EU의장국

- G20은 선진국만으로 구성된 G7과 달리 선진국과 신흥국이 균형 있게 포함된 국제 협의체. 다만, 정상회의가 아닌 재무장관 회의였으며, 긴급한 현안 해결보다는 중장기적 과제를 논의하는 성격

□ G20 정상회의 개최배경

- 작년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신흥국간 긴밀한 정책공조 중요성이 대두

- 기존의 G7 선진국 외에 주요 신흥국을 포괄하는 국제논의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 확산

- 지난 30년간 신흥개도국들의 세계경제 비중이나 역할은 급격히 확대되었으나 국제금융체계는 이러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

-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이 제기되었으나, 그간 운영되었던 "G20"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공감대 형성

- 장관·총재급 회의로 운영되던 G20 회의를 정상급 회의로 격상, 최초의 G20 금융·경제 정상회의 개최 ('08. 11.15일 美워싱턴)

□ G20정상회의와 G8정상회의와의 관계

- 세계경제 내 신흥경제국들의 비중이 계속 증대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의 참여 없이는 글로벌 경제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함

- G20은 세계인구의 2/3를 포함하고 세계 GDP의 85%를 반영하는 등 세계경제 대표성을 갖춘 체제임

- 이제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는 중요한 축으로서 G20 체제의 제도화가 필요

- 이 과정에서 G20가 기존의 G8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양 협의체
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상호 보완이 필요

- G8은 전통적인 세계 지도국 모임으로서 정치·안보 이슈를, G20는
거시경제·금융 등 글로벌 경제 이슈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함

□ G20정상회의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

o 최근 국제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경제위기는 개별국가 또는 일부 선진
국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

o 이러한 의미에서 선진국과 주요 신흥국이 균형 있게 참여하는 G20 정
상회의 체제는 효율성과 대표성을 겸비한 국제협력체로서, 현재의 위
기극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

- 특히 실물경제 침체가 확산되는 가운데 G20 정상회의에 거는 세계
의 관심과 기대는 매우 큰 상황

□ G20 서울 개최는 세계경제 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글로벌 중 심 국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유례없는 새로운 외교적 기 회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함

o 글로벌경제 위기 이후 세계경제 질서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, 선진
국의 목소리가 일방적이던 국제사회에서 G20의 부상과 함께 신흥국의
목소리와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

- 제3차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(2009.9)는 G20를 세계경제협력의 위
한 최상위 포럼으로 지정했으며, 공식적으로 G20가 G8을 대체하는
새로운 글로벌 경제협의체로 격상한 것임

o G20가 현재와 같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의를 통한 경제위기 타개 모델로서 제도화한다면 향후 경제 이슈뿐만 아니라 안보 이슈까지 다루는 다자협력체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큼

o 한국에서 열리게 될 G20 회의는 G20가 정례화한 이후의 실질적인 첫 회의로서 G20 제도화의 첫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큼

- 서울회의는 G20의 향후 운영방향 및 제도화 문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

- G20 정상회의가 제도화하면 명실상부하게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될 것

- 특히 한국은 내년 G20 의장국에다 주최국까지 겸하게 되며,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회의 개최뿐 아니라 의제 설정, 토론 및 공동선언문 도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임. 이는 G20라는 새로운 글로벌 운영체제에서 우리의 국제적 역할과 지위가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

□ 'G20 외교'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 우리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에 비추어 절대적으로 부족한 외교역량을 강화해야 함

o 국내적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직을 정비해 체계적인 준비체제를 갖추도록 하고,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인적·물적 차원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함

f 해외자문위원들도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G20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할 수 있을 것

정착각 한강

□ G20 회의의 한국 참여는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단순히 규칙 준수자(Rule Taker)로서가 아니라 규칙 제정자(Rule Setter)로서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주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중요성이 있음

○ 한국은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조정자 역할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됨

- G20 국가 중 역사적으로 식민지를 경험했던 국가가 선진국가의 항렬에 진입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며, 특히 전쟁의 폐허 속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거둔 한국의 개발경험은 매우 중요한 자산

○ G20 정상회의 개최는 올림픽과 월드컵에 비견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하고 커다란 글로벌 국제행사이며, 이러한 국가적 과제는 1988년 올림픽이나 2002년 월드컵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통합의 좋은 계기가 될 것임

- 앞으로 정부·정치권·학계·산업계, 그리고 재외동포사회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G20 정상회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바로 인식하고,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국민 모두의 단합된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

-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이번 G20 정상회의 개최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, 내부적인 통합과 결속을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임

3. 4대강 살리기

□ 정부는 전 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적 경제성장을 위한 녹색뉴딜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4대강 살리기를 추진 중임

○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의 위협으로부터 양호한 생태환경 복원 및 유지와 함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부가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추진

- 기후변화로 말미암은 잦은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하고, 역사문화 및 경관을 활용한 지역경제 발전,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공간 창출, 생태계의 보전 등

○ 2008년 세계미래학회(World Future Society) 발표

- 2025년에는 물 값이 원유만큼 비싸지고 세계 인구의 ⅓가 물부족을 겪게 될 것을 경고함

○ Foreign Policy(May-June, 2009)

- 경제위기 이후 세계를 움직일 10대 핵심요소 가운데 물이 중요한 미래자원이 될 것으로 전망

○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군에 속함

- 평균 강수량은 1245mm로 세계평균 880mm보다 많지만 인구밀도가 높아 1인당 강수량은 세계평균의 ⅓에 불과함

- 2005년 기준 1인당 재생가능 수자원량도 1488m³로 세계 130위 수준(물 스트레스 기준에 해당)이며 후진국형 재해인 가뭄에 따른 급수중단, 제한급수가 일부지역에서 반복되고 있음

- 강물이 가장 적게 흐르는 시기에는 하천이 마르면서 생태계의 훼손이 초래되고 있음

o 핵심 키워드는 “친환경”

- 추진계획은 물론 설계와 시공까지 친환경을 공통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
- 물 부족과 홍수로부터 자유로운 ‘물 관리 강국’, 친수(親水)를 바탕으로 생태복원과 수질 개선에 성공한 ‘환경선진국’으로 발전을 목표로 함
- 유엔환경계획(UNEP)은 한국의 4대강 사업을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경제 실현을 위한 모범사례로 언급

o 환경 살리기로 거듭나기 위해 수계별 특성에 반영된 체계적인 유역 단위의 통합 물관리 계획 아래 지속적인 하천 수질 개선노력을 기울일 계획임

□ 4대강 살리기 사업 내용

- o 하도(river channel) 준설(dredging), 16개 보(reservoir/cistern)와 중소규모 3개소의 다목적댐 설치, 농업용 저수지 96개소 제방을 높여 총 13억 톤의 용수(using water) 확보함으로써 가뭄피해 예방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생명운동임
- 4대강은 토사가 오랫동안 퇴적됐기 때문에 강바닥이 원래 위치보다 굉장히 높아져서 비가 조금만 와도 범람하고 비가 안 오면 가물어 물이 마르는 상태가 되어 오염된 퇴적토를 준설하고 강을 되살리는 것이 시급한 상황

- 지금 이대로 놔뒀다가는 강이 점점 죽어가서 강이 품고 있는 생명체도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임
- 미국 오하이오주의 미시시피강에 180개, 유럽 다뉴브강에 70개의 보가 있지만 수질과 생태 악화 사례는 찾기 힘든 실정임

□ 이명박 대통령의 소신(3.23 국무회의)

- 4대강 사업의 목표는 새와 물고기, 자연환경과 생태가 죽어 나가는 현실에서
- 첫째,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, 과거에 죽은 생태와 습지를 살려내 복원하자는 것이며 셋째, 4대강을 하면 13억톤의 물이 확보됨을 강조함
- 종교계가 생명과 환경 문제에 앞서 있는 만큼 그분들의 이야기도 경청하는 자세를 갖추고 진실이 잘 알려지도록 설명할 것을 당부함

□ 사업별 특징

가) 한강

- 과거 한강정비사업보다 더욱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수질·환경·생명 살리기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
- 환경기초시설 사업을 비롯해 친자연적 생태습지와 다양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이 추진됨에 따라 수질개선, 다양한 수종 동식물과 하천구역의 생물다양성 확보 등 방대한 효과를 유발
- 시민 건강증진에도 획기적 효과를 기대함

- 친환경 수변공간이 늘어나면 물을 가까이 하는 시민의 신체적 운동과 레크리에이션 활동기회를 대폭 늘려 시민 건강증진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임

나) 금강

- o 1980년 대청댐이 건설되면서 홍수피해가 줄고 충청권 주민의 70%에
게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한 효과가 있으나, 물길이 막히고 생태통로가 단절됨
- 대전 갑천의 경우, 수질은 심각히 오염되고 퇴적물 때문에 악취가 발생하고 기형물고기가 나타나 지역의 큰 골칫거리였음
- o 사업은 ①금강 본류와 지천 그리고 ②대전, 청주 등 도심하천 살리기
사업으로 구분

다) 영산강

- o 물 부족과 수질오염이 가장 큰 문제로서, 영산강 유역에서 가장 큰 도시인 광주는 대부분 섬진강 수계인 동북호와 주암호의 물을 식음수로 사용
- 4대강 중에서 수질오염이 가장 심각한 영산강은 '수질개선'이 최우선 목표
- 환경기초시설과 하수처리장 대폭 확충을 통해 '2급수 수준의 맑은 물로 되살리려는 것임'

라) 낙동강

○ 물 확보, 홍수 방재, 수질 개선 및 생태복원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

- 수질문제를 포함한 물문제의 근본 원인은 유량 부족임
- 8개의 보와 중소형 댐 신설, 농업용 저수지 뚫 높임 등으로 하천 유량이 확보됨에 따라 오염물질을 희석시켜 낙동강 수질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옴

4. 천안함 사고

□ 주요발언을 통해 본 대통령의 의지는 투명하고 객관적 조사를 통해 국제사회가 충분히 인정할 만한 증거를 확보한 이후 필요시 단호한 대응을 실천에 옮겨야 정당성과 명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임

○ 제38차 라디오·인터넷 연설(4.5)

- 원인규명은 속도보다는 정확성이 더 중요함. 고통스럽지만, 인내심을 갖고 결과를 기다려야 함

- 대한민국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며 6자회담의 당사국이기도 함.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제대로 원인을 밝혀야 할 것임

□ 제5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브리핑(4.1)

○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철저하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원인을 밝혀낼 것임

- 6자회담의 당사국으로,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이며 국내적 발상만으로는 안 됨
- 조금의 의혹이나 허술함도 있어서는 안 되며 그래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
- 어느 때보다 침착한 자세가 필요함. 최종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려야하며 그것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임을 강조

□ 천안함 침몰 발생 상황

- 3월 26일, 해군의 1200t 급 초계함 '천안함'이 서해 백령도 인근해상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과 함께 침몰해 승조원 104명 가운데 46명이 실종되는 대참사가 발생
- 통상적인 초계함의 21시20분경 근무상황(당직 29명)에 비추어 볼 때 천안함의 당시 상황은 정상 근무 중인 상태로 판단
- 사고 직후 이명박 대통령은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"한 점 의혹 없이 조사내용을 공개하라"고 지시했지만 아직까지 사고원인과 경위에 대해서는 추측만이 난무할 뿐 속 시원히 밝혀진 것은 없음.
- 상황에 대해 생존자 58명 모두 "후미 충격과 함께 1~2초간 '뿡, 쿵~앙' 등의 소리가 났고 정전과 동시에 일부 격실에 기름, 해수가 유입되면서 갑자기 오른쪽으로 90° 기울어졌다"고 진술
- 1200t 급 초계함이 대파돼 참몰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는 강력한 폭발의 진상이 무엇인지는 선체 인양 작업이 마무리 되고 난후 민·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끝나면 투명하게 밝혀질 것으로 판단

□ 조치 사항

- 합동조사단은 앞으로 선제 인양에 대비해 원인규명을 위한 정밀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,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단장은 만·군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
 - 미국, 호주, 영국 등의 외국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결과를 공개해 국제적 공신력을 높일 계획임
 - 미국 해난사고 정밀조사팀을 합류시켰으며 한미 공동사고조사위원회도 구성할 방침